

## 읽기장애 위험아동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특성 분석\*

김 경 선\*\*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김 동 일\*\*\*

서울대학교

---

### 《 요 약 》

---

본 연구는 읽기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특성을 탐색하고, 초인지 읽기전략과 읽기이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7 명이며 이 학생들을 읽기이해 점수에 따라 3집단(읽기장애 위험집단, 저성취집단, 일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읽기장애 위험학생은 초인지 읽기전략 30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저성취집단보다, 14개 항목에서 일반집단보다, 그리고 7개 항목에서 저성취집단과 일반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빈도로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읽기장애 위험학생이 전반적전략, 문제해결 전략, 및 보완적전략 3개 영역 모두 일반학생보다, 그리고 문제해결전략에서 저성취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빈도로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인지 읽기전략과 읽기이해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추론적이해와의 상관이 사실적이해와의 상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특성을 분석하고, 초인지 읽기전략과 읽기이해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중재의 내용을 선택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읽기장애, 초인지, 읽기전략, 읽기이해, 저성취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007)

\*\* 제1저자(muindok@hanmail.net)

\*\*\* 교신저자(dikimedu@snu.ac.kr)

## 1. 서론

### 1. 문제제기

최근 읽기이해 수행 과정 및 전반적 학업 수행 과정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동기에 대한 초인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초인지의 개념을 소개한 Flavell(1979)은 초인지가 개인의 인지 과정에 대한 점검과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초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초인지에 대한 정의와 영역 또한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초인지 관련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초인지는 크게 초인지 지식과 초인지 기술로 나뉘질 수 있다.

초인지 지식은 개인의 인지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할 수 있다(Flavell, 1976). 예를 들면, 어려운 내용이 글에 등장할 때 다시읽기 전략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초인지 기술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개인의 통제(Brown, 1987)를 일컫는 것으로 예측 기술과 평가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초인지는 학습자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읽기이해 과정에 초인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Lau와 Chan(2003)은 인지 및 초인지 읽기 전략이 읽기이해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지 및 초인지 읽기전략은 심지어 학습동기 보다 읽기이해와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Yang(2012)은 기하학 증명하기에 요구되는 읽기이해력에 초인지 전략이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인지전략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김애화, 김의정(2006)은 읽기이해 점검이 읽기유창성, 어휘력, 읽기이해 능력보다 읽기학습 부진 검사를 더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인지와 읽기이해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인지의 발달 지체, 혹은 결함은 학습자의 읽기이해력 발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위해서 독자는 글을 읽는 목적을 인지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방향을 전환하는 등 읽기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읽은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읽기를 규제하고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Pressley와 Afflerbach(1995)에 의하면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측하고, 선행지식을 활용하며, 중요한 개념은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다시 읽기를 하는 등 다양한 읽기 전략을 구사하며 읽기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잘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읽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읽기이해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 이해, 특정 세부 내용 인식, 결론 내리기 및 결과 예측 등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초인지 기술의 결함 때문이다(Sencibaugh, 2007).

산재한 선행연구들은 학습장애 혹은 읽기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초인지 발달이 늦거나 비효율적인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Yang(2012)은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하학 증명에 필요한 읽기 이해 과정에서의 초인지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읽기이해력에 따라 집단을 읽기이해 우수집단, 읽기이해 보통집단, 읽기이해 열등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초인지 전략 사용을 비교해 본 결과, 읽기이해 우수집단의 초인지 전략사용이 계획하기, 점검하기 및 정교화 증명에서 보통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정교화 증명과 계획하기, 점검하기, 규제하기 등의 모든 영역에서 열등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등집단은 보통집단보다 초인지 전략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Lau와 Chan(2003)은 읽기이해 수준에 따라 우수집단과 열등집단으로 학생을 분류하고 두 집단의 읽기이해와 관련한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7개의 읽기전략에서 모두 우수집단이 열등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열등집단의 학생들이 우수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등집단의 경우 읽기점검, 추론하기 등의 상위 인지 능력에서 현저히 점수가 낮았다. 김운옥(2010)은 읽기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학업수행 과정에 대한 학습장애 학생의 초인지 양식을 일반학생의 초인지 양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습장애 학생은 초인지 지식, 기술, 경험, 모니터링, 자기규제 등의 모든 초인지 하위 영역이 일반 학생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자들이 학습장애 학생의 낮은 초인지 능력이 일반학생과 질적으로 다른 초인지의 발달, 혹은 부조화된 초인지 발달로 설명되는 초인지의 ‘결함’(Geary, 1993)인지 단순히 초인지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덜 복잡하게 발달한 ‘발달의 지체’(Borkowski & Thorpe, 1994; Wong, 1996)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의견은 합치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낮은 초인지 능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학습장애 학생의 경우 초인지 기술, 혹은 전략이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교수를 통해 학습가능하다는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산재한 초인지 읽기전략 중재 연구들에서 연령이 낮은 읽기장애 학생도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초인지 읽기 전략 중재를 통해서 초인지 인식이 확장되었고 읽기이해력이 향상되었다(Sencibaugh, 2007)고 보고된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장애 초등학생의 초인지 특성을 밝히고 특성에 부합하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학습장애 학생의 초인지 특성에 대한 연구는 빈번히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5학년 이상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Hannah & Shore, 2008),

수학과 관련한 초인지 특성 분석(Desoete & Roeyers, 2002), 및 학습 전반에 걸친 초인지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김윤옥, 2010; 김윤옥 2013)가 대부분이다. 초인지 능력이 연령에 따라 상이한 발달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 학생의 초인지 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장애 학생의 초인지에 대한 영역 특정 이론(domain specific theory)은 읽기장애 학생의 경우 수학과 관련한 초인지에는 결함이 없으나 읽기과제와 관련한 초인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Desoete & Roeyers, 2002)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관련 초인지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습장애로 판정되는 학생의 비율이 37%로 증가하게 되고, 이 중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는 것이 읽기장애(Fletcher, Lyon, Fuchs, & Barnes, 2007; U.S.Department of Education, 2010)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 학습장애의 출현율이 약 0.07%로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고(조은미, 변찬석, 최나리, 2011), 학습장애 학생 중 읽기장애 학생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학습장애 출현율은 실제 학습장애 출현율이 낮기 보다는 학습장애 진단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읽기중재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발달 과정에서 전환기이며, 많은 학생들이 읽기발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초인지 발달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4학년 학생들을 읽기장애 위험집단, 저성취집단, 일반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 읽기전략 사용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발달 특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읽기이해에 문제가 있는 집단을 읽기장애 위험과 저성취의 두 집단으로 분류한 이유는 읽기이해 능력의 지체가 심할수록 초인지 전략 사용도 더 현저히 지체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초인지가 '인지과정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읽기이해 과정에서 초인지 읽기전략과 인지 읽기전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Pereira-Laird(1997)는 초인지는 읽기 전, 읽는 동안, 읽기 후 등의 과정에서 계획하기, 점검하기, 그리고 규제하기 등을 포함하는 반면 인지 전략은 새로운 자료를 사전 지식과 통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전략은 시연전략, 정교화 전략, 및 조직화 전략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즉 인지 읽기전략은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동안 취하는 행동인 반면에 초인지 읽기 전략은 독자가 자신의 읽기를 점검하고, 식별하고, 교정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인지 읽기전략'은 '인지 읽기전략'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의 사용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읽기장애 위험학생이 또래와 비교하여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초인지 읽기전략이 읽기이해와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읽기 전략 중재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읽기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이 저성취 학생 및 일반학생과 차이가 있는가?
- 2) 초등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은 읽기이해력과 관련이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297명이며, 감각장애,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여학생이 130명(43.8%), 남학생이 167명(56.2%)이며, 평균 연령은 9.73세이다. 본 연구를 위해 2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회의 읽기 이해 동형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세 집단(읽기장애 위험집단, 저성취집단, 일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읽기이해 동형검사는 3개월 동안 매월 초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3회의 읽기 이해력 검사 점수가 모두 하위 25%인 경우 읽기장애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3회의 읽기이해 검사 중 1회만 하위 25%에 속한 경우 저성취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읽기 이해 검사 점수 2회가 하위 25%에 속한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3회의 읽기이해력 검사 결과가 모두 상위 75%에 속한 경우 일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읽기장애 위험집단이 36명, 저성취집단이 32명, 그리고 일반집단이 181명이며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읽기이해력 검사 및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검사는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연수를 이수한 22명의 학급 담임이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검사 소요

시간은 읽기이해 동형 검사는 각 25분씩,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검사는 20분이 소요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사례수	성별		연령	읽기이해점수
		여자	남자	평균	평균
읽기장애위험집단	36	8	28	9.76	22.47(8.77)
저성취집단	32	14	18	9.72	37.44(6.97)
일반집단	181	89	92	9.69	45.36(5.27)
전체	249	111	138	9.71	41.03(10.12)

## 2. 검사도구

### 1)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는 Mokhtari, Reichard(2002)가 개발한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MARIS)를 사용하였다. MARIS는 다양한 교재를 읽는 동안 독자의 인지, 초인지 읽기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전반적인 전략, 문제해결 전략, 보완적 전략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이다. MARIS는 원래 6~12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검사 도구인데 박경옥(2008)은 MARIS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하도록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박경옥(2008)이 번안한 도구를 경력 5년과 13년의 경력이 있는 초등교사 2명에게 초등학교 4학년의 읽기 수준에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 타당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알파)는 .82로 나타났다.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과 예시 문항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 설명 및 예시문항

영역	설명	예시문항	문항번호
전반적 전략	학습자가 자신의 읽기를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의한 의도적이고 조심스럽게 계획된 기술	① 길이나 구조와 같은 특징들을 알기 위해 미리 훑어보기를 하는가? ②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표, 그림, 사진들을 이용하는가?	1, 3, 4, 7, 10, 14, 17, 19, 22, 23, 25, 26, 29

영역	설명	예시문항	문항번호
문제 해결 전략	글의 정보를 이해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국지적이고 초점화된 기술	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는가? ② 글의 내용을 그래프나 그림으로 나타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8, 11, 13, 16, 18, 21, 27, 30
보완적 전략	글의 이해 과정에서 독자를 돕기 위한 목적의 기본적인 지원 체계	①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가? ② 사전과 같은 보조 자료를 이용하는가?	2, 5, 6, 9, 12, 15, 20, 24, 28, 24, 28

## 2) 읽기이해력 검사

연구 참여자를 읽기이해력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또한 초인지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이해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읽기이해력 검사 도구는 김경선(2013)의 연구에서 개발된 읽기이해 동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7개의 설명문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다형 문항 20문항과 단답형 10문항 총 30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검사 도구는 글 자체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질문인 사실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과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글에 제시된 정보들 간의 암묵적 관계를 파악하고,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 혹은 선행지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추론적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을 각각 15문항씩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4개의 동형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읽기이해력이 3시점에서 모두 또래의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을 읽기장애 위험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읽기이해 동형검사 3개의 신뢰도는 .91 ~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검사의 최고점은 60점이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문제는 읽기이해력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초인지 읽기전략 문항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적용하여 초인지 읽기 전략 검사 하위 영역인 전반적전략, 문제해결전략, 보완적전략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과 읽기이해력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8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이므로 연구 대상자의 전략 사용 정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언어 학습에서 전략사용 해석을 위해 Oxford, Burry-Stock(1995)이 제안하였던 세 단계 기준인 높은 사용 빈도(평균 3.5 이상), 중간 정도의 사용 빈도(평균 2.5~3.4), 그리고 낮은 사용 빈도(평균 2.4 이하)를 도입하여 연구 대상자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정도를 해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읽기이해력 수준에 따른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의 차이

##### 1) 문항별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읽기이해력 수준에 따른 세 집단의 읽기전략 사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집단별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각 문항별 기술통계와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세 집단의 항목별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빈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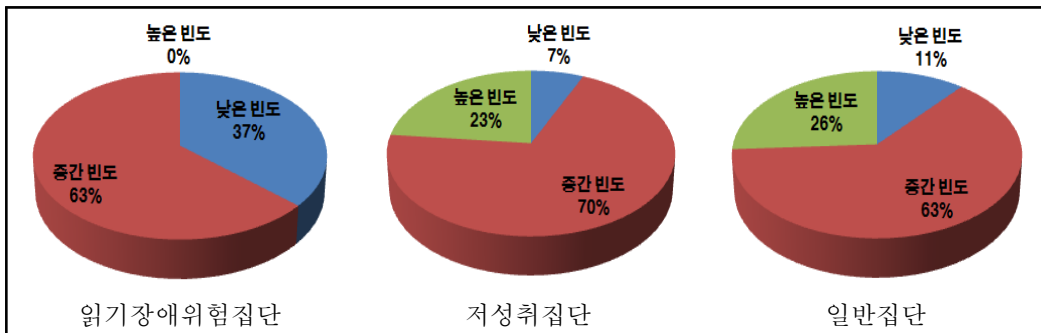
<표 3> 각 문항별 세 집단의 읽기전략 차이

문항	읽기장애위험			F	사후분석 (Scheffe)
	읽기장애위험	저성취	일반		
	평균(표준편차)				
1	2.61(1.34)	3.21(1.11)	3.25(1.17)	4.28*	가 < 다*
2	2.19(1.37)	2.41(1.21)	2.38(1.20)	0.37	
3	2.78(1.44)	3.52(1.35)	3.73(1.33)	7.50**	가 < 다**
4	2.67(1.35)	3.69(1.34)	4.11(1.17)	21.25***	가 < 나**/ 가 < 다***
5	2.53(1.48)	3.1(1.52)	3.13(1.47)	2.50	
6	2.28(1.28)	2.97(1.43)	3.1(1.41)	5.26**	가 < 다**
7	2.53(1.23)	3.38(1.37)	3.05(1.42)	3.30*	가 < 나*
8	2.72(1.39)	3.59(1.35)	3.71(1.22)	9.148***	가 < 나*/ 가 < 다***
9	2.19(1.37)	2.59(1.48)	2.3(1.36)	0.72	
10	2.11(1.33)	2.76(1.43)	3.24(1.45)	9.72***	가 < 다***
11	2.79(1.45)	3.61(1.55)	3.79(1.39)	7.003**	가 < 다**
12	2.61(1.48)	3.52(1.60)	3.37(1.42)	4.52**	가 < 나*/ 가 < 다*
13	2.50(1.29)	3.66(1.40)	3.72(1.30)	12.36***	가 < 나**/ 가 < 다***
14	1.86(1.05)	2.45(1.53)	2.70(1.47)	5.27**	가 < 다**
15	2.42(1.30)	2.97(1.57)	2.64(1.46)	1.16	



문항	읽기장애위험	저성취	일반	F	사후분석 (Scheffe)
	평균(표준편차)				
16	2.71(1.38)	3.31(1.56)	3.94(1.25)	14.07***	가 < 다***
17	2.47(1.46)	3.07(1.58)	3.27(1.50)	4.08*	가 < 다*
18	2.33(1.41)	3.0(1.60)	2.77(1.49)	1.69	
19	2.37(1.24)	2.52(1.43)	2.81(1.45)	1.70	
20	2.69(1.49)	2.9(1.40)	3.09(1.46)	1.20	
21	2.23(1.35)	2.52(1.53)	2.11(1.27)	1.229	
22	2.66(1.45)	2.97(1.48)	3.29(1.47)	3.03*	가 < 다*
23	2.31(1.23)	2.18(1.25)	2.66(1.37)	2.13	
24	2.6(1.36)	3.34(1.42)	3.57(1.44)	6.69**	가 < 다**
25	2.60(1.29)	3.10(1.42)	3.42(1.38)	5.47**	가 < 다**
26	2.47(1.46)	3.14(1.41)	3.51(1.32)	8.39***	가 < 다***
27	2.46(1.17)	3.48(1.48)	3.91(1.32)	17.88***	가 < 나** / 가 < 다**
28	2.2(1.30)	2.61(1.47)	2.62(1.44)	1.28	
29	2.53(1.33)	2.72(1.39)	3.14(1.50)	3.06*	가 < 다*
30	2.37(1.44)	3.55(1.43)	3.29(1.44)	6.99**	가 < 나** / 가 < 다**
총점	2.45(0.92)	3.06(0.92)	3.19(0.96)	9.69***	가 < 나** / 가 < 다***

\* $p < 0.05$ , \*\* $p < 0.01$ , \*\*\* $p < 0.001$   
 가: 읽기장애위험집단, 나: 저성취집단, 다: 일반집단



주) 높은 빈도: 평균 3.5 이상, 중간 빈도: 평균 2.5-3.4, 낮은 빈도: 평균 2.4 이하

<그림 1> 초인지 읽기전략 30개 항목에 대한 집단별 사용 빈도

읽기장애 위험집단은 11개의 문항을 매우 낮은 빈도(평균 1.86~2.46)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19개 문항을 3점 미만의 중간정도의 빈도(2.53~2.78)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성취 집단의 경우 낮은 빈도의 전략 사용(2.18~2.41)은 2개 문항에서

만 나타났고, 7개 전략을 높은 빈도로 사용(3.52~3.69)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읽기 장애위험집단과 읽기전략 사용의 빈도 측면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일반집단의 경우에는 낮은 빈도의 읽기전략 사용은 3개 문항에서만 나타났고(2.11~2.38), 10개 전략을 높은 빈도로 사용(3.42~3.94)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일반집단이 읽기장애 위험 집단과 저성취집단보다 빈번히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차이가 실제로 초인지 읽기전략사용의 차이를 의미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30개 전략 중에서 10개 전략은 사용 빈도에 있어 세 집단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0개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참고>.

특이하게도 읽기장애 위험집단과 저성취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략이 한 문항 있었다. 즉 「글의 내용이 읽기 목적에 맞는지 점검하기」 문항에서 저성취집단은 글을 읽을 때 중간 빈도(3.38)로 읽기 목적을 점검한다고 보고한데 비해 읽기장애 위험집단은 드물게 읽기 목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장애위험집단이 저성취집단과 일반집단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략은 6개 항목인데 「글의 제목과 목차 등 미리보기」, 「내용이해를 위해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중요한 내용 표시하기」, 「속도 조절해가며 읽기」, 「어려울 때 다시 읽기」, 「모르는 낱말 추측하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술한 6개의 전략에서 읽기장애 위험집단이 또래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전략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 12개 전략은 읽기장애위험집단과 일반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전략으로는 「읽기 목적 정하기」, 「선행지식 활용하기」, 「내용 요약하기」, 「교재 먼저 훑어보기」, 「집중력 떨어질 때 돌아가서 읽기」, 「집중해야 될 내용과 무시할 내용 정하며 읽기」, 「어려운 내용 주의 기울이기」, 「내용이해를 위해 그림, 사진 등 이용하기」, 「관계 파악위해 앞 위 내용 보면서 읽기」, 「내용과 맞지 않을 때 이해한 것 점검하기」, 「내용 추측해가며 읽기」, 「나의 추측이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며 읽기」 등이 있다. 즉, 이 12개 항목의 경우 일반집단과 저성취집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전략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10개의 항목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전략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읽기장애 위험집단의 점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저성취집단과 일반집단에서도 3점 이하의 낮은 빈도로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전략으로는 「읽은 내용을 그래프, 그림 등으로 나타내기」, 「내용에 대해 질문 만들기」, 「소리내어 읽기」, 「단락 자신의 말로 바꾸기」, 「이해도 점검위해 타인과 토론하기」, 「사전이용하기」, 「내용이해를 위해 단서 이용하기」,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 「제시된 정보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중요한 정보 확인하기 위해 강조한 것들 이용하기」 등이 있다.

읽기전략 사용 총점에서도 읽기장애위험집단이 저성취집단( $p < 0.01$ )과 일반집단( $p < 0.001$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 읽기장애 위험집단이 또래에 비해 읽기전략 사용이 미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저성취집단은 일반집단 보다 전략 사용 평균이 약간 낮기는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두 집단의 읽기전략 사용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집단의 읽기이해 점수가 현저한 차이(저성취집단: 평균 37.44, 일반집단: 평균 45.36,  $p < 0.001$ )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외의 결과이며 이 결과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별 집단 간 차이

읽기장애위험집단, 저성취집단, 일반집단의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의 하위 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전략, 문제해결전략, 보완적전략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별 집단 간 차이

	전반적전략		문제해결전략		보완적전략	
	M	SD	M	SD	M	SD
읽기장애위험집단	2.46	0.97	2.51	0.92	2.40	0.95
저성취집단	2.98	0.94	3.34	0.98	2.94	0.97
일반집단	3.24	0.98	3.40	0.93	2.91	0.97
<i>F</i>	10.02		13.83		4.24	
<i>p</i>	0.000		0.000		0.016	
Scheffe	가 < 다***		가 < 나** 가 < 다***		가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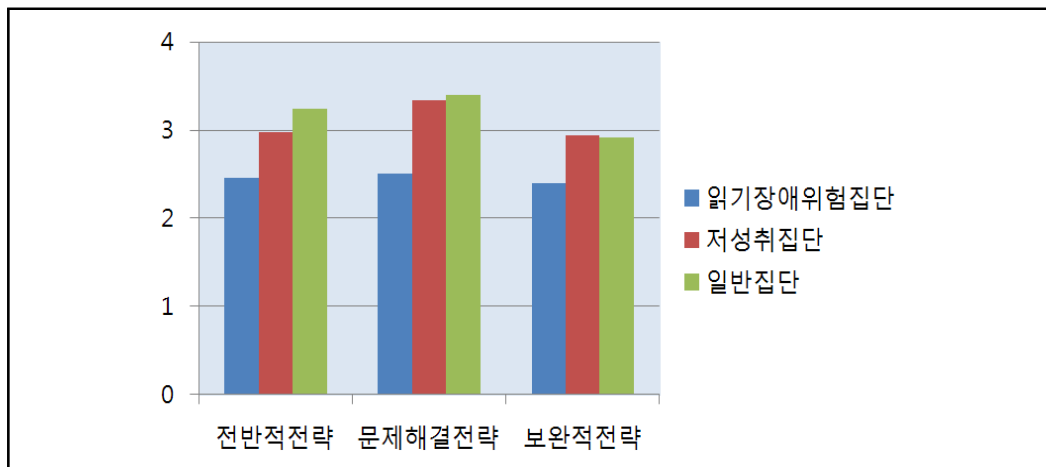
Wilks의 랏다=0.83,  $F(6, 428)=409.74$   $p=0.0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가: 읽기장애위험집단, 나: 저성취집단, 다: 일반집단

세 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p=0.651$ 로 나타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vene의 오차분산의 동일성 검정 결과, 모든 종속변인의 유의확률이(전반적 전략:  $p=0.62$ , 문제해결전략:  $p=0.60$ , 보완전략:  $p=0.55$ )  $p > 0.05$ 로 나타나 오차분산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Wilk의 랏다 값이 0,83,  $F(6, 428)=409.74$ ,  $p < 0.001$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의 읽기전략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읽기전략검사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읽기장애 위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빈도(전반적·문제해결전략:  $p < 0.001$ , 보완적전략:  $p < 0.05$ )로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성취집단이 읽기장애 위험집단 보다 문제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p < 0.001$ )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전략 사용 분석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일반집단과 저성취집단 간의 읽기전략 사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2>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별 평균

## 2.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과 읽기이해력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검사와 초인지 읽기전략 검사와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  $r$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읽기이해력과 읽기전략 사용 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26에서 .4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초인지 읽기전략 총점은 읽기이해 총점과 .34( $p < 0.01$ )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과 추론적 이해 간의 상관계수는 .39( $p < 0.01$ ),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계수는 .26( $p < 0.01$ )으로 초인지 읽기전략과 추론적 이해와의 상관계수가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계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전략(.34,  $p < 0.01$ )과 문제해결 전략(.35,  $p < 0.01$ )이 보완적전략(.24,  $p < 0.01$ )보다 읽기이해 총점과 더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인지 읽기전략 3개의 하위 영역 모두가 사실적이해보다는 추론적 이해와 더 높은 상관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과 읽기이해력과의 상관관계

	전반적 전략	문제해결 전략	보완적 전략	읽기전략 총점
사실적이해	.26**	.28**	.27**	.26**
추론적이해	.41**	.42**	.30**	.39**
읽기이해 총점	.34**	.35**	.24**	.34**

\* $p < 0.05$ , \*\* $p < 0.01$ , \*\*\* $p < 0.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읽기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을 탐색하고, 초인지 읽기전략과 읽기이해와의 상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초인지 읽기전략 30개 항목 중 20개 항목에서 읽기장애 위험학생은 일반학생 또래보다 유의하게 낮은 빈도로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취학생도 읽기전략 사용 총점이 읽기장애 위험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저성취학생과 일반학생 간에는 전략 사용 30개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초인지 읽기전략 하위 영역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읽기장애 위험학생이 전반적전략, 문제해결전략, 및 보완적전략 3개 영역 모두 일반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빈도로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성취집단과 읽기장애 위험집단은 문제해결전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초인지 읽기전략은 읽기이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특히 초인지 읽기전략과 추론적 이해와의 상관성이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읽기장애 위험학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전략사용의 빈도가 유의하게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업전반에 걸친 초인지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학습장애 학생의 초인지가 또래학생들보다 낮다는 결과를 보고한 김윤옥(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읽기장애 위험학생들은 모든 항목(30개)에서 모두 평균이 3점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초인지 전략을 드물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또래 학생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초인지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인지 전략 중에서 특히 「자세히 읽을 부분과 무시해도 되는 내용 결정하며 읽기」가 읽기장애 위험학생들이 가장 드물게 사용(평균 1.8)하는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읽기장애 위험학생들이 자신의 읽기과정을 평가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몇 개의 항목, 즉 「질문하기」, 「단락을 자신의 말로 바꾸기」, 「기억을 위해 읽은 내용을 시각화하기」 등의 전략은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전략 중재 연구를 통해 효과크기가 가장 크다고 밝혀진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장애 위험학생은 물론이고 일반학생들도 이러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전략들이 초등학교 4학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어려운 전략이므로 명시적 교수가 필요한 전략들임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저성취집단이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에 있어서 읽기장애 위험집단보다 일반집단과 더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예상외의 결과이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성취학생들이 읽기장애 위험학생들과 초인지 전략 사용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른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읽기장애 학생들의 초인지 '결함 가설' 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읽기장애 학생의 초인지 '결함 가설' 과 '발달 지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저성취학생들이 자신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저성취 및 학습장애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Kruger & Dunning, 1999; Stone & May, 2002), Kruger 와 Dunning(1999)은 이러한 원인이 초인지의 결함 혹은 지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읽기장애 위험학생에 비하여 저성취 학생들이 자신의 초인지 전략사용을 과대평가 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또한 어렵다. 추후연구에서 자기보고식 검사와 실제 초인지 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저성취 집단이 실제로 읽기장애집단과 초인지 능력사용이 다른 집단인지 검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성취집단이 읽기장애집단과 초인지 전략 사용 능력이 다른 집단이라고 밝혀진다면 학습장애진단 모델로서 저성취모델의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별 읽기전략을 세 영역으로 분류(전반적, 문제해결, 보완적 전략) 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읽기장애 위험집단이 초인지 읽기전략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일반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다시 한 번 읽기장애학생의 낮은 초인지 사용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읽기장애 위험집단이 문제해결전략에서만 저성취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저성취집단의 예상외의 높은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이 문제해결전략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집단은 문제해결전략과 전반적전략에 비해 보완적전략을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Mokhtari & Reichard, 2002)과 고등학생(Zhang & Wu, 2009)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독자가 읽기능력이 발달할수록 보완적전략(예, 사전이용, 타인과 토론하기, 소리내어 읽기)

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용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적전략사용 빈도가 다른 전략에 비해 낮다(Mokhtari & Reichard, 2002)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세 집단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영역 중 문제해결 전략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Zhang & Wu, 2009)과 대학생(Mokhtari & Reichard, 200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독자는 연령과 관련 없이 글을 읽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의 깊게 읽거나 다시 읽기, 속도를 조절해 가며 읽기 등의 문제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인지 읽기전략과 읽기이해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는 초인지 읽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읽기이해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인지 읽기 전략이 사실적 이해보다 추론적 이해와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추론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정보들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존의 선행 지식과 그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는 질문은 사실적 이해 질문보다 해결하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과정을 평가하고 읽기과정을 조절하는 초인지 기술이 추론적 이해 과정에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서울, 경기 지역의 6개 학교의 학교에서만 표집 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초인지 읽기전략 자기 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읽기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을 탐색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로 학생들의 초인지 전략 사용 능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초인지 읽기전략의 수행 정도를 실제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보고 결과와 관련성을 점검해 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장애 위험학생의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 특성을 또래학생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초인지 읽기전략과 읽기이해와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읽기장애 위험학생들은 초인지 읽기전략 사용이 일반 또래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초인지 읽기 전략 중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경선 (2013). 읽기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이해와 읽기관련기술 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경선, 김동일 (2013). 읽기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이해력 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3), 207-225.
- 김애화, 김의정 (2006) 읽기부진학생의 읽기이해 점검력 및 읽기이해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01-119.
- 김윤옥 (2010). 학습장애 학생의 초인지 양식 탐색. **학습전략중재연구**, 1(2), 15-26.
- 김윤옥 (2013). 초등학생 초인지양식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학습전략중재연구**, 4(1), 1-25.
- 박경옥 (2008). 뇌성마비 학생의 초인지적 읽기이해 전략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17-37.
- 조은미, 변찬석, 최나리 (2011). 한국과 미국의 학습장애 현황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중재반응 모델 제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587-611.
- Borkowski, J. G., & Thorpe, P. K. (1994).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A life-span perspective on underachievement. In D. 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pp. 45-100). Hillsdale, NJ: Erlbaum.
- Brown, A. L. (1987). Knowing when, where, and how to remember: A problem of metacognition. *Advanced in instructional psychology*, 77-165.
- Desoete, A., & Roeyers, H. (2002). Off-line metacognition—a domain-specific retardation in young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ies Quarterly*, 25, 123-139.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 906-911.
- Fletcher, J. M., Lyon, G. R., Fuchs, L. S., & Barnes, M. A. (2007). *Learning disabilities: From identification to intervention*. New York: Guilford.
- Geary, D. C. (1993). Mathematical disabilities: Cognitive, neuropsychological, and genetic compon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4, 345-362.
- Hannah, C. L., & Shore, B. M. (2008). Twice-exceptional students' use of metacognitive skills on a comprehension monitoring task. *Gifted Child Quarterly*, 52, 3-18.
- Lau, K., & Chan, D. W. (2003). Reading strategy use and motivation among chinese good and poor readers in Hong Kong.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26, 177-190.
- Mokhtari, K., & Reichard, C. A. (2002). Assessing Students'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249-259.
- Oxford, R. L., & Burry-Stock, J. (1995). Assessing the us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orldwide the ESL/EFL version of the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 *System*, 23, 1-23.



- Pereira-Laird, J. A., & Deane, F. P.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reading strategy use. *Reading Psych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18*, 185-235.
- Pressley, M., & Afflerbach, P. (1995). *Verbal protocols of reading: The nature of constructively responsive reading*.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encibaugh, J. M. (2007). Meta-analysis of reading comprehension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Reading Improvement, 44*, 1-6.
- Stone, C. A., & May, A. L. (2002). The accuracy of academic self-evaluations in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5*, 370-383.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29th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7*. Washington, D. C.
- Wong, B. Y. L. (1987). Directions in future research on metacognitive in learning disorders. In H. L. Swanson (Eds.), *Memory and learning disabilities. Advances in learning and behavioral disabilities* (Vol. 2) (pp. 335-356). Greenwich, CT: JA Press.
- Yang, K. (2012). Structures of cognitive and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y use for reading comprehension of geometry proof. *Educ Stud Math, 80*, 307-326.
- Zang, L. J., & Wu, A. (2009). Chinese senior high school EFL students' metacognitive awareness and reading strategy us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1*, 37-59.

## The Characteristics of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of Students at Risk for Reading Disabilities

**Kyoungs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il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reports findings from a study that assesses metacognitive awareness and reading-strategy use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who are at risk for reading disabilities. A total of 249 students responded to a 30-item survey of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MARIS). The strategies we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global reading strategies,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support reading strategies. The result showed that significantly lower metacognitive strategy use scores were found for children at risk for reading disabilities compared with low achieving children and average achieving children. In addi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a reading comprehension achievement and their overall strategy use ( $r=0.34$ ), problem-solving strategies ( $r=0.35$ ), support strategies ( $r=0.24$ ), and global strategies ( $r=0.34$ ). Findings are discussed in light of the reading strategy knowledge base as well a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 Words** : metacognitive awareness, reading strategy, low achieving students, students at risk for reading disability, reading comprehension

---

논문 접수: 2014. 08. 06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09. 20